

엇갈린 유통법 대선공약...“대형마트 일요일 열까 쉴까”

이재명, 전통시장 인근 출점 5년 연장 vs 김문수, 의무휴업 자율화
대형마트 업계 “이커머스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 제대로 대응 못해”

유통업계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유통법 관련 공약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지난해 티메프 사태 등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이 담긴 유통법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2012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개정한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두 번 휴업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지만, 이커머스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하는 대신 전통시장 반경 1km 내 대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5년 연장하는 법안 등 대형마트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는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자율화 등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도 유통법 개정 당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지 않았던 환경에서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를 위해 적절했던 규제였지만, 이커머스가 확대한 현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유통업계 조사에서 국내 유통업계에서 온라인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50.4%로 오프라인을 앞질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 쿠팡이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업계 매출 1위에 올라서는 동안 대형마트 ‘빅3’으로 불렸던 홈플러스는 지속되는 업황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다른 대형마트 역시 손실을 속속 회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체가 된 지금, 대형마트가 휴업한다고 해서 그 소비층들이 전통시장이나 집 앞 마트를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점별로 휴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등 임시방편 마련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업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해외 패션 브랜드
지금이 구매 타이밍”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코치 매장에서 직원들이 시즌오프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코치는 지난 23일부터 30~50% 할인 및 구매 금액대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일 릴리 10~30%, 비비안웨스트 우드 30%, 에트로 30~40%, 로레나안토니아까지 30% 등 다양한 브랜드가 할인 행사를 펼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밥상물가 안정...aT, 농산물 최대 40% 할인

6월 4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6월 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밥상물가 안정’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45차 물가관계자회의’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 장기화로 악화되고 있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배추·무·수박·잠외 등 국산 농산물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정부가 20%를 지원하고, 각 유통업체도 자체적으로 최대 20% 추가 할인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해당 유통업체 회원인 경우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온라인에서는 품목별 전용 할인 쿠폰을 내려받고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할인 품목은 각 유통업체들의 전단지 또는 매장 내 가격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할인 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된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행사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연휴에 지갑 더 닫았다...온라인·가맹점 매출 ↓

국내 민간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이달 초 연휴 기간에 오히려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 나우케스트에 따르면 지난 3~9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2.7%, 전주보다 18.4%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일이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내리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쉬는 기간 국내에서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쇼핑파도 한산했다. 지난 3~9일 온라인 지출 금액은 1년 전보다 5.1%, 전주보다 18.9%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카드 매출액 역시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각각 감소했다.

국내 소비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오락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1%포인트(p)에서 올해 1분기 0.0%p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수입맥주 6캔에 9900원...애주가들 설레는 ‘주류대전’ 연다

이마트, 오늘 150종 최대 50%

이마트는 29일 “주류 상품 150종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향파라 선택하는 나만의 한 잔’이라는 테마에 따라 국산·수입 맥주, 생맥걸리, 위스키 등 국내외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한다.

우선 국산·수입 맥주는 18종을 준비하고, 개당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놨다. 이번 행사에서는 330ml부터 740ml까지 다양한 용량의 상품을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캔맥주 5종 골라담기’ 행사도 진행한다. 1664 라거, 파울러 뮌헨라거, 쿠퍼스 페일에일, 쿠퍼스 스타우트, 기린이치방 당류제로 중 원하는 맥주 330ml 6캔을 고르면 9900원에 판매한다. 이는 개당 1650원으로 기존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또 위스키 행사도 강화했다. 최근 위스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0여종의 위스키를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 시 최대 9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잭다니엘스 BIB 라이(700ml)’는 이마트 오프라인 단독 선출시 상품으로,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막걸리 종류로는 국순당, 장수막걸리 등 유명 브랜드부터, 해장막걸리, 제주쌀막걸리 등 지역 특색이 담긴 막걸리 등 60여종을 할인한다. 더불어 생맥걸리 전품목(살균 막걸리 제외)에 대해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한다.

명용진 이마트 주류 카테고리 매니저는 “세분화되는 고객의 음주 취향과 흡술, 혼술 트렌드에 맞

춰 주류 프로모션을 다변화하고 단독 판매 상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